

기독교의 권리장전

성경말씀: 행15:1-35

오늘은 논현동 사랑침례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 지난 4년간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신약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리하려 한다.

교회의 비전: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배척함(요1:12).

AD 30년 4월경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도 풀이 죽어 숨어 다니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감.

기독교는 타원: 2개의 센터가 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었다(행1:3).

그분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행4:19-20).

이들의 복음 선포 대상: 초기 10년간은 유대인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잡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분을 거절함.

스테반 사건(7장),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면서(8장) 세상의 각처에 복음이 전달됨.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 바울이 등장함(9장). 예비된 그릇: 성경과 지혜와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드디어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아주시는 것을 목격함.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음(행11:26).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함.

때가 되매 성령님께서 이 둘을 택하시라 로마 제국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 1차 선교 여행: 13-14장
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비쳐진 기독교

복음 선포를 위해 하나님은 침묵의 400년 동안 로마의 도로,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스말을 준비하심.

로마의 관용 정책: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리스 사람들과 다른 이교도들의 다신론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때 사람들에게 다가선 것이 히브리 문화와 신학이었다(창조주 유일신 사상).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방 신이 아닌 우주를 지배하는 여호와를 섬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신만이 유일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세상의 역사로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세상에는 이런 종교 체제가 없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 시절에는 이미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들은 천부적 재능과 열심히 인해 부와 지위를 얻기 시작하였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앙보다는 그들의 윤리에 더 매력을 느꼈다.

안정된 가정, 순결의 중시, 부모 자식 간의 돈독한 유대 관계, 사람들끼리의 독특한 가치 인정, 양심적인 상업 행위, 빈민 구제, 자선 활동, 이를 통해 많은 유대교 개종자들이 생김

문제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유대교를 좋게 보면서도 거기에 100% 올인하기 어려웠다.

율법과 할례 준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음식 문제, 안식일, 성전, 제사장, 개종 절차의 복잡성).

처음에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 중 의식 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매우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가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시작 이후 약 20년이 지나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자기들 종교의 붕괴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오늘 읽은 행1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명확하게 선포한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논쟁(1-5)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의 사도들은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24).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5).

몰래 기어들어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이다(갈2:1-10).

유대주의자들의 존재는 놀랄 일이 못 된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가 아직 기록되지 않음.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도 율법의 관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위해 관례들을 준수함(행21:20-26).

이들이 하는 일: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것,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담으려 함.

성전 휘장이 갈라졌는데 이것을 다시 꿰매려 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워 놓으신 구분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다시 세우려 함.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기에 힘든 멍에를 지게 함.

이들의 주장: 이방인은 반드시 먼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

1. 이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갈1:1-9).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저주받을 자이다.

2. 선교의 문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선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도착하자 성도들 간에 분란이 생겼다(2, 7, 24).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게 됨.

베드로의 발언(6-11)

1.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 유대인들(2장), 사마리아인들(8장), 이방인들(10장)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 이방인 고넬료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임(7절).

2.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사 거듭난 증표를 보게 하심(8절).

3.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이를 이제 없애셨다(9절; 롬3:9, 22).

4.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지기 힘든 율법의 멍에를 제거하셨다는 것이다(10절).

율법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보호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장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는 그런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부과할 필요가 없음. ★★★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12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믿음의 문을 여셨다. 율법의 문이 아니다.

야고보의 지지 발언(13-18절)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현상들을 지지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내신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

회의 결과(19-35)

1. 교리적인 것과 실행적인 것

교리적인 결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엡2:8-9).

사도 바울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저주받을 이단 교리이다.

2. 실행적인 것(28-29), 28절 중요함 ★★★☆☆

음행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음식 문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음식 문제는 후에 다시 정리가 됨(딤후4:4).

한국의 상황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이런 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처음에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청교도 신앙을 고수하면서 지극히 율법적인 교리를 부과하였다.

심성이 부패한 한국인들에게 근면성과 규칙 등을 가르쳐 주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전통으로 자리 잡음. 이들의 신학 요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되었다. 구약의 것들을 강요함.

오순절 은사주의, 번영 신학의 횡행,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한가?

다음의 요소들을 제거하면 가능하다.